

# “市, 학습권 침해 개선하고 지하철 혼잡도 완화 노력해야”

## 서울시 이달의 시민 제안

### 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 최다 호응 쓰레기 소각장 관광명소화 요구도 5·8호선 등 혼잡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민들이 학교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중단,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관광명소화, 강동 지역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도곡중학교 일대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의견이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으로 꼽혔다.

도곡중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세브란스 공사와 삼호아파트 재건축으로 학교 운동장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이라고 앞으로 2년 동안 운동장 사용을 못 할 것 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며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066명이 지지를 표했다.



수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개념도(예시). /서울시

매봉산 끝자락에 자리한 서울도곡중 학교는 재건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삼호아파트와 학교 운동장 지하를 굴착해 주차장과 병원 시설을 보완할 예정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맞붙어 있다.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이모 씨도 “두 공사가 함께 시행되면 도곡중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는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의견에는 118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공사가 예정돼 있어 불편을 끼치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공사일정 및 통학 시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공사 시행 전에 충분히 협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남구 재건축사업과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모 씨는 “서울시는 지난 8월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기존 마포구 난지도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하루 처리 용량을 1000t 규모로 확대 구축하기로 했으나 마포구와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쓰레기 소각장 일부를 견학을 포함한 생태교육장으로 이용하고 기존 쓰레기 매립시설을 보여주는 환경생태전시관으로 개발해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설 쓰레기 소각장은 생태 전시관과 함께 지하에 짓고 지상층에는 광장을 만들어 기념품, 편의점 등을 갖춘 관광객 편의 시설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가 굴뚝 상부에 월드컵 브리지와 회전식 전망대를 조성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혐오 시설에서 관광 시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는 “마포 삼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한강이라는 소중한 관광 자원이 있다”면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시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투자,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

란다’에는 강동구 지역의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민 A씨는 “지하철은 현재 이태원 압사 사고와 장소만 다른 복사판으로, 다음 압사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는 곳”이라면서 “50만을 육박하는 강동주민들에게 현재 9호선의 접근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열악하고 그 연장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또 5·8호선의 혼잡도는 서울시가 알다시피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5호선의 경우 하남선 연장 이후 상일동 및 하남 방면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일동 구간 혼잡도 개선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출근시간대 4회 증회 운영을 시행했다”면서 “추후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차운행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혼잡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 9호선 4단계 등 연장노선 개통에 따른 혼잡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세계로 향하는 서해벚길’ 사업 본격화

### 한강 물길 기능 강화... 관광 자원화 2026년 여의도 내 ‘서울항’ 조성

오는 2026년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들이 한강행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서울을 관광하거나,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벚길을 지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한강의 물길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세계로 향하는 서해벚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벚길은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물길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물길로서 한강의 기능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관광을 선도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견인해 서울 경제에



서울항 개념도. /서울시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해벚길 사업의 핵심은 여의도에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해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벚길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선 시는 2023년부터 한강~경인아라벚길 유람선을 정기운항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서울항’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코로나19로 중단

됐던 한강~경인아라벚길 운항 재개를 앞두고 1000t급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한강 갑문 인근 수역의 수심을 3.5m로 확보하는 준설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한강~경인아라벚길 유람선 정기운항에 맞춰 선박 길이가 약 66m인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현재 65m인 여의도 선착장을 95m로 확장한다.

이어 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만든다. 향후 시는 해양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기능을 도입,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서 서울항의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을 활용, 터미널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더해 서울항을 복합문화관광명소로 만들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대우건설-한국해비타트 주거 취약계층 공동지원 나선다

### 재난예방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협력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NGO)와 손잡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주거약자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을 목표로 물막이판, 침수경보기 등 재난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창호·단열·방수 같은 주택 성능 개선과 함께 도배·장판 교체, 곰팡이 제거 등 가구별 맞춤형 집수리를 추진,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청에서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참여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이다.

시는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발굴·추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한다.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후원한다.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시흥시, 신속 도로제설 작업체계 구축

시흥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강설과 폭설 시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체계를 갖춘다. 시는 제설추진반을 운영해 구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면도로 및 보도 등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

이다.

이에 차량 59대, 제설장비 살포기 58대, 제설기 39대를 투입해 제설자재 소금 등 약 4300톤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소금 약 2800포대를 배부할 계획과 제설함

150개를 고갯길 및 응달 구간에 배치했다.

주요 고갯길, 교차로, 고가도로 등 27개 구간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원거리, 취약구간 등에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정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흥(경기)=임창교 기자 lckda@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11월 15일 (화)  
음력 : 10월 22일

수도권 날씨  
4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3, 동두천 1/13, 가평 0/13, 파주 0/13, 서울 4/14, 양평 1/13, 수원 5/13, 용인 5/13, 평택 1/14, 인천 7/13, 백령도 9/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중간선거서 ‘대선사기’ 주장한 공화 후보들 낙선
- ▲美 델러스 에어쇼서 군용기 2대 공중 충돌로 최소 6명 사망 /사진 뉴시스

- ▲펠로시 “바이든 출마해야”...거취 관련 “최종 결과 나온 뒤 결정”
- ▲인권단체 “이란 히잡시위로 최소 326명 사망”...참가자에 첫 사형 선고



- ▲푸틴, 도네츠크·루한스크 징집 대학생 동원령 해제 지시 /사진 뉴시스
- ▲“제재 해제하면 탄소배출량 줄인다”...러 대표단, COP27 악용